

트럼프 “3차 미·중 무역회담 성공적”… 주도권 과시

리청강 “관세 90일 유예 희망”… 베센트 “최종 결정은 대통령” 中 관영 매체 ‘실리보다 체면’ 위주 보도… 자국 위상 고평가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다. “매우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 등의 표현에서 회담이 자신의 구상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골프장 개장 및 홍보, 유럽연합(EU)·영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 그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방금 스코트 베센트(재무장관) 전화를 받았다. 중국과 회담이 아주 잘됐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단이 내일(30일) 브리핑하면 난 (합의를) 승인하거나 안 하거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각인시킨 셈이다.

이날 인도와 러시아 관세도 언급했으나 핵심은 중국과의 협상 문제였다. 트럼프는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올해 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역시 시 주석 실각설 등 중국의 국내 정치적 근경이 알려진 가운데 고도의 압박으로 일일 만하다. 중국 정부에겐 때때로 ‘실리보다 체면’, 특히 자국민들에서 공산당이 어떻게 보여질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측에서 먼저 연락해 왔다’는 구도를 중시하다 보니, 고위급 회담을 위한 실무진들 ‘밀밀 만남’이 분주한 시점에서 ‘접촉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기도 한다. 5월 1차 협상 직전 관세 ‘폭탄’과 ‘맞대응’을 주고받다가 145%까지 갔을 때, “조만간 협상”을 예고한 트럼프와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말이 엇갈렸던 이유다.

워싱턴DC행 에어포스원 위에서 트럼프가 무역 합의의 순조로움을 전하며 “무역 합의는 매우 잘 되고 있다. 모두에게 그렇기 바라지만 우리 입장에서 매우 매우 좋다”고 한 것은 별다른 양보 없이 중국의 사실상 유일한 카드인 ‘히토류 수출 제한 완화 가능성’을 이끌어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 종료 직후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은 “관세 유예 90일 연장 지지”와 “양국 간 협력 지속 희망”을 밝혔다. 이 두 가지 사항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답한 미국에 비해 중국이 더 절박한 상황임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임시 중지’ 전략을 공식 제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애버딘을 출발해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3차 미·중 협상에 대한 만족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연대 회동을 시사했다. AP-연합뉴스

한 점, 표면적 양보가 있었지만 협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협상력을 강화했다고 봤으나 미·중 협상은 트럼프 주도권 흘러가는 모양새다. 18일 중국 상무부의 베이징 공식 기자회견 때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무역전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음을 제네바와 런던에서의 최근 회담이 입증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순을 관리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은 서로가 필요하다.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렵지도 않다”는 입장 또한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최신 발언을 보면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뚜렷해진다.

관세 유예 연장이 합의된 듯 발표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재 전이라 결정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로써 관세 발효일 8월1일 전날

자정까지 중국 측에선 트럼프 트루스소설 게시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가 됐다. 반면 미국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으며 중국이 더 다급한 상황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90일 유예 및 협상 유지에”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중국 측에서 원하고 있으니 우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세 차례 회담을 통해 중국 측이 히토류 수출 제한 완화 신호를 높였으며 기술이전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도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미국은 외교적 무게감과 유연한 형식 전환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4월 중국이 7개 핵심 히토류 원소와 자석 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제와 엄격한 할별 쿼터를 도입했다. 희귀 광물이란 뜻의 히토류지만 실은 세계 곳곳에 매장돼 있어 희귀하진 않다. 다만 정제 비용과 환경 파괴를 우려한 서방이 미루는 동안 중국 손에 넘어갔다. 공급망 다변화에 힘쓰고 있으나 전 세계 히토류 시장 90%를 점유한 중국의 경쟁력에 당장 맞서기 어려워 히토류는 당분간 최대 협상카드로 작용한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엔 자국이 ‘밀리지 않았다’는 논조가 두드러졌다. “중국이 주도해 안정적 무역 환경을 이끌었다”(환구시보), “서로의 존중과 이익을 기반으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인민일보) 등이다. 중국에선 어떤 경우라도 협상에 ‘실패했다’거나 상대국에 ‘떨러진다’는 식의 보도를 할 수 없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의 경우 ‘우리가 중심이 돼 무역 긴장을 완화했다’는 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임영신 기자 imms@skyedaily.com

IMF, 아르헨 경제성장률 5.5% 전망… “현 정부 집권 1년반 잘했어요”

40년간 200~3000% 인플레이션 올해 20% 전후 예상 WSJ “밀레이의 ‘마가’ 호평… “효율적 저비용 구조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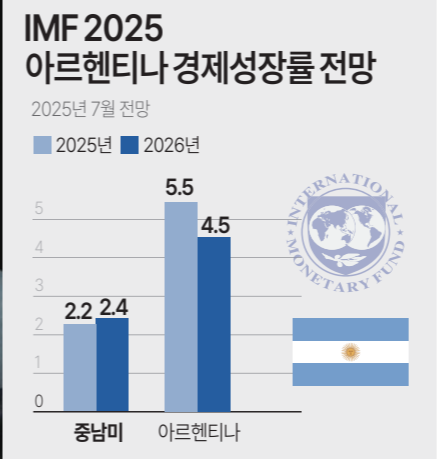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중남미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내다봤다. 이날 나온 IMF 세계경제 전망에서 아르헨티나의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월에 이어 각각 5.5%와 4.5%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렝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 경제의 “강력한 회복세”를 짚으며 “불가상승률 억제”를 높이 평가했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이 전했다.

구렝샤는 올해 말까지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을 18%~23%로 예상했다. 한때 3000%를 넘었고 현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211%였다. IMF의 긍정적 전망들이 일명 ‘아르헨티나 (도널드) 트럼프’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2023년 12월 대통령 취임 이래 안정적 거시정책과 성장 회복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르헨티나는 IMF 최대 채무국이다. 1956년 가입해 지금까지 총 23차례 IMF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현재 400억 달러(55조 원) 이상의 빚을 진 상태지만 밀레이정부 출범 1년 시점부터 IMF로부터 호평을 받기 시작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연합뉴스



했다. 한편 IMF 평가에 대해 ‘체감 성장률 1%’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좌우 진영의

대립이 강한 만큼 현황을 둘러싼 해석도 갈라져 정치적 양극화와 여론 분열을 말해준다. 아르헨티나엔 좌파 포퓰리즘의 전형

인 페론주의와 반페론주 대립 구도가 뿌리 깊다. 자유주의 밀레이까지 부상하면서 정치적 분열이 더욱 심화됐다. 밀레이 정부가 급진적 긴축과 규제 철폐를 단행하며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낮췄고 일부 회복세도 보였지만 성장 회복은 아직 불균형적이다.

인베코 아르헨티나경제컨설팅사의 경우 올해 성장률 5%에 대해 2024년 하반기 통계의 이월 효과와 올해 초 ‘세금 감면’ ‘수출 증가’ ‘물가 안정’ 등 연간 성장률을 낙관하게 만들 착시 요인 때문 일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도출한 예상 성장률은 1%다. 아울러 작년 중반부터 이어진 경제 회복세가 올해 2월 멈췄고 3월 이래 체제 조짐이라는 점, 민간 소비, 산업 활동, 투자 등

여러 지표가 둔화 내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밀레이 집권 1년 만인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갤럽 조사에선 응답자의 53%가 ‘생활 수준 개선’을 느끼며, 41%는 ‘도시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정부 신뢰도는 2023년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시장 불안은 컸다. 최근 아틀라스인텔 설문에선 노동시장 관련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다. 그러나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레이 정책을 ‘아르헨티나 마가’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MAGA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의 머릿글자다. WSJ은 ‘규제 철폐 900개 이상’ ‘공공 지출 30% 축소’ ‘공무원 3만 6000명 이상 정리’ 등을 통해 “매우 효율적인 저비용 국가 구조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3~4월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다.

임영신 기자 imms@skyedaily.com

아스팔트에서 산화한 열사 김시립표 월약산 도라지즙

동의보감 東醫寶鑑

도라지 桔梗

60봉지 1상자 70,000원

사은행사 4상자 3+1 210,000원

4개 묶음배송 무료배송

다로배송지 각, 4천원씩 택배비 추가

김시립 목사님 사모-남경우

농협계좌 356-1421-4451-03

입금후 문자☎010-2387-9937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 65세 완성)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아 임진왜란으로 구급용 언해본 편찬 중 선조의 사망에 대한 죄를 물어 귀양살이와 복귀함을 반복하며 1610년(광해군 2) 25권 완성 ▶ 동의보감 길경(桔梗)-청폐거담(淸肺祛痰 맑은 폐 가래제거) (熱那 熱那) 기촉(氣促 호흡이 가쁜 것) 폐열(肺熱 폐질환) 면적(面赤-홍열) 해수(咳嗽-가래) 비건(鼻乾-코 마름) 비늑(鼻-코피) 흉통(胸痛-가슴통증) 천축(喘促-기침하고 숨이가쁨) 객혈(咯血-기침에 피를 토함)